



모심으로 하나되는

#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포덕 164(2023)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제 104주년

# 3·1절 기념식



포덕 164(2023)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 차례

식순 03

기념사 04

천덕송\_제17장 공락가 10

삼일절 노래 11

독립선언서 12

## 3·1절 기념식 식순

1. 개 식
1. 국민의례
1. 청수봉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독립선언서 낭독
1. 천덕송 합창\_ 제17장 공락가 / 1절-3절
1. 기념사
1. 삼일절 노래 합창
1. 만세삼창
1. 심 고
1. 폐 식

### [기념식후]

거리행진 및 의암성사 동상참례(중앙대교당 → 탑골공원)

# 기 념 사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운동의 거룩한 햇불이 불타오른지 104주년이 되는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기미년의 3·1운동은 한마디로 청사에 빛나는 민족정신입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는 조국독립의 제단 위에 생명과 재산을 바쳐 온몸으로 독립만세를 절규했던 선열들의 충정을 귀감으로 삼아 가슴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일제는 1910년 우리나라를 강점 합병한 후 교육계와 종교계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전격적으로 해산하고 사법 및 행정경찰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헌병경찰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제는 언론·출판·결사·집회를 일체 불허하는 극단적인 무단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포교활동의 규칙을 만들어서 일본의 신도(神道)와 불교 및 기독교만을 종교로 인정하고 천도교와 대종교 등 민족종교는 유사종교단체로 규정하여 차별적인 감시와 탄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암성사께서는 치욕적인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후 “앞으로 국권회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내 반드시 10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덕 53(1912)년 6월에 우이동에 봉황각(鳳凰閣)을 건립하고 이후 7차에 걸쳐 전국의 교역자 500여명에게 연성수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의암성사는 봉황각 연성수련을 통해서 주로 이신환성(以身換性)과 성령출세(性靈出世)에 대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때

가 되면 국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법이었습니다. 그 정신이 3·1운동 당시 천도교가 전국 조직망을 통해서 일제히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의암성사는 포덕 59(1918)년 4월의 부구총회(部區總會)에서 대교당 신축을 결의하고 신축특성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에 일제는 교단의 은행예금을 압수 동결하는 등 방해를 하였지만, 전국의 천도교인들은 논밭과 황소 등을 팔면서까지 특성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교일기념일(현도기념일)을 기해서 경운동에 대교당 기공식을 거행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바로 이 무렵에 세계1차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약소민족에 대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제기되자 의암성사께서는 1월 5일부터 전국적으로 49일 특별기도를 실시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기독교·불교계와 제휴하여 민족대표 33인을 선정하고, 특히 기독교측의 요구로 5천원을 지원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고종 임금의 국장일(國葬日) 3월 3일을 앞두고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경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3월 1일에 거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당 최남선에게 독립선언서와 국내외 각계 요로에 보내는 청원서를 작성케 하였습니다.

거사일을 이틀 앞둔 2월 27일 밤 보성사 인쇄소에서 독립선언서를 극비리에 인쇄하는 도중 고등계 형사 신승희에게 발각되어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때 이종일 사장이 하루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급히 의암성사에게 달려가 5천원의 거금을 가져다가 주고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쇄를 마친 독립선언서는 신축 중인 대교당 앞마당에 있는 이종일의 임시숙소로 옮겨진 후 28일 새벽부터 비밀리에 전국 각지에 발송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의암성사께서는 마지막으로 2월 28일 춘암상사에게 유시문(諭示文)을 통해 차후 교회사에 대한 책임을 당부하는 한편 이날 밤 민족대표들을 가회동 자택으로 초청하여 ‘이 성스러운 과업이 여러분의 충의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공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드디어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암성사께서는 보성사 사장 이종일에게 ‘독립선언서를 직접 인쇄했으니 크게 낭독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의암성사는 경무총감부에 이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최린에게 지시하여 당당히 압송되었습니다.

이와 때를 맞추어 탑골공원에 모인 수만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가행진에 돌입했습니다. 이처럼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삼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가 삼천리강산을 넘어 해외에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과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은 3월 1일 오전 보성사에서 독립신문 1만 5천부를 인쇄 배포하여 만세운동의 전개상황을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독립신문 발행인 윤익선이 체포되었지만, 독립신문은 계속 발행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동덕 여러분!

일제의 무단통치 아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삼천리 강토를 울린 3·1운동,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그 행진은 일제의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마저 초월한 순교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3·1운동 당시 천도교는 의암성사 등 열다섯 분의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중앙총부와 전국에 있는 150여 개 천도교 지방교구에서도 독립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평안도의 최석일 교구장은 태극기를 든 오른팔이 일본군이 휘두르는 군도(軍刀)에 잘려나가자 왼팔로 태극기를 들어 만세를 부르다가 끝내는 목마저 군도에 잘려서 장렬하게 순국하였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 우리 교단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의암성사를 비롯한 교단의 고위 교역자가 대부분 체포 구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산에 주둔한 일본군 1개 대대가 10여 일 동안 중앙총부를 포위 점령하여 총부 기능이 완전 마비되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지방교구의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3·1운동 후 애국지사들이 국내외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정부를 비롯한 3개 임시정부에서 옥중에 계신 의암성사를 대통령으로 추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민족지도자인 의암성사의 영도력과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임시정부는 우여곡절 끝에 상해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우리나라는 조선조 5백년의 군주제를 마감하고 민주공화제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전문(憲法前文)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3·1정신을 계승한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생명을 담보로 3·1운동을 영도했던 의암성사는 결국 서대문감옥에서 중병을 얻어 순국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동덕은 오늘 104주년 3·1절을 맞이하면서 3·1운동을 거족적으로 승화시킨 의암성사의 거룩한 신념과 순국정신을 귀감으로 삼아 국가의 번영과 교단중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가슴 깊이 심고하고 다짐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기념사를 마치겠습니다.

포덕 164년 3월 1일

천도교 교령 박 상 종 심고

##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 악 마 도 망 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 널 리 퍼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온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울 리는 곳 에 궁 을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홍 초 록 봄 -언덕 에 온 갓 새 부르짖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풍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 삼일절 노래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일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요



이 날 은 우리 의 의 요 생 명이 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여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 [ 독립선언서 ]

우리는 오늘 조선(우리나라)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

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



있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

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인도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같고 닳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어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고귀하고 세상에 빛남)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뚜렷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천도교중앙총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수운회관 우)03147  
[www.chodogyo.or.kr](http://www.chodogyo.or.kr) e-mail [webmaster@chodogyo.or.kr](mailto:webmaster@cho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